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안 귀 여 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526명의 여대생들이었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18세에서 37세($M=20.10$, $SD=2.70$)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Straus의 갈등척략척도, Foo와 Margolin의 데이트 폭력 정당화 척도, 정진경의 한국판 성역할 검사, 이경성과 한덕웅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 척도이다. 분석 결과,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심하게 구타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약한 정도의 신체적 가해를 당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보다 순수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공격적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았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 여성보다 데이트 폭력에 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여성 이 미경험 여성보다 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추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어 : 데이트 폭력, 공격적 피해자, 가정폭력, 성역할, 관계개입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E-mail : khsuh@syu.ac.kr, Tel : 3399-1676

여성이 사춘기를 지나 성숙하게 되면 자선만의 이상적인 이성상을 그리며 그것에 걸맞은 상대를 찾아 로맨틱한 데이트를 꿈꾼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이성관계가 언제나 로맨틱한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성(gender)을 가진 사람과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으며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성이 남성에게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열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연인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적절한 책략을 사용한다면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고 로맨틱해 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Levy, 1990).

데이트 도중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피해를 입을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서경현, 2001; Levy, 1990). 심각한 것은 이런 데이트 폭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고 하는데(Levy, 1990),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서경현, 2002; 서경현, 2004;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 안귀여루, 2001). 한 연구(김정란, 1999)에서는 대상자들의 50%이상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보고한 적도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만성적이고 폭력의 강도가 점차로 심해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미 연방 수사국(FBI, 2000)은 살해당하는

여성의 1/3가량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7년 초 신혼여행 후 폭행을 당해 파경에 이른 한 연예인이 결혼 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크지 않았다. 가정폭력의 경우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은 서양에서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그 심각성이 무시되어 왔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 서양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이 탐구되어 온 반면에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 한편,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서양의 경우에도 어떤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Charkow & Nelson, 2000). 서양과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데이트 폭력은 그 양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도 함께 탐색하기도 했지만 데이트 폭력 가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검증 연구들은 많이 있었고,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나 대부분 일반적인 특성을 탐구하였고, 심리적 특성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요약하면, 지

금까지 수행된 연구들(Crandall, Nathens, Kernic, Holt, & Rivara, 2004; Heise & Garcia-Moreno, 2002. Howard & Wang, 2003; Ramisetty-Mikler, Goebert, Nishimura, & Caetano, 2006; Tjaden & Thoennes, 2000)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요인으로 주로 여성, 낮은 연령,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 상대보다 높은 여성의 학력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차이, 폭력에 노출된 지역사회 거주, 정통적인 성역할 기준 등이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에는 순수하게 피해만 당한 경우도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그것에 대한 반발로 폭력을 사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먼저 데이트 폭력을 가해한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순수하게 피해만 당한 사람(victims only)이 아니라면 그들을 공격적 피해자(aggresive victims)라고 한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친구들부터의 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들 중에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분노표출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종효, Essex, 2002; Craig, Pepler, Connolly, & Henderson, 2001; Felix & McMahon, 2006; Schwartz, Dodge, & Coie, 1993). 또한, 공격적 피해자가 순수 피해자보다 친구들에게서 배척당하는 경향이 있었다(Schwartz, 2000).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도 주위사람들에게 왜곡되어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경현과 이경순(2002)의 연구에서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은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ookwala, Frieze, Smith, 그리고 Ryan(1992)의 연구에서는 공격적

인 언어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연구(Witte, Schroeder, & Lohr, 2006)에서는 같은 수준의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격적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보다 수동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순수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이 더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중에 공격적 피해여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순수 피해자와 달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도 이성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그것의 피해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검증되어 온 변인이다.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의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런 가정은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학습이론인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에서는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의 목격은 전후관계성 변인(contextual variables)으로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행동할까”를 예언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변인으로 설명한다.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딸은 정상적인 남성상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남성을 기피하거나 남성의 우월성을 과인정하는 하는 경향이 있다(Lichte & McCloskey, 2004).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장과정에서 자녀의 남성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

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을 목격한 것을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매번 일관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서경현 외,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Comins, 1984; Foo & Margolin, 1995; Riggs & O'Leary, 1996).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고(Comins, 1984; Stets & Pirog-Good, 1987; Follette & Alexander, 1992; Riggs & O'Leary, 1996).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으나(Sigelman, Berry, & Wiles, 1984), 서양의 연구들에서는 대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두 변인 간에 더 높은 관련성을 보여 왔다(예: 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 데이트 폭력 피해만을 보자면 O'Keefe(1997)의 연구에서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남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는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것이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서경현, 2004; 서경현 외, 2001)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연구도 있었다(서경현, 이영자, 2001). 참고로, 전자의 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후자의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남녀 사이에 행하는 폭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행하거나 데이트 폭력에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도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었기 때문에(서경현, 2002; 서경현, 2004; 서경현 외, 2001; O'Keefe, 1998; Stets & Pirog-Good, 1989),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념을 변인으로 채택하

였다. 데이트 폭력을 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트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은 몇몇 연구들에서도 지지되었다(Arias & Johnson, 1989; Henton, Cate, Koval, Llyod, & Christopher, 1983). 그러나 그것은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O'Keefe, 1998; Stets & Pirog-Good, 1989). Foshee가 동료들(Foshee, Linder, MacDougall, Bengdiwala, 2001)과 청소년들을 1년 반 동안 추적하여 종단연구를 해 보니 남자 청소년과는 달리 여자 청소년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는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y와 Foshee(1997)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수용적이면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ookwala 등(1992)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데이트 도중 폭력을 더 행하여 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남성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연구(서경현, 2004; 서경현 외, 2001)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는 상관이 없고, 데이트 폭력 가해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는 물론 피해와도 상관이 있었다.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이영자, 2001)에서도 데이트 폭력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지가 여고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려고 한다.

성역할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인관계에서 남

녀가 공통적으로 상대가 여성성을 나타내면 낼수록 서로에게 만족하는 것으로 검증된 적이 있다(Bradbury, Cambell, & Fincham, 1995; Hours, Robins, & Huston, 1996: 이경성, 2004에서 재인용). 남성이 남성성을 많이 보이고 여성이 여성성을 많이 보이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신념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김양희, 정경아, 2000). 전통적인 성역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은 연인관계에 덜 만족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대개 남성이 전통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Kelly & Conley, 1987).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이 여성성을 더 보일 때 상대가 더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 종단연구(Lichte & McCloskey, 2004)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것과는 상관없이 남녀관계에서 남자가 더 주도적이며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강조하는 가정의 자녀가 데이트 폭력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남성성을 보였을 경우 남성의 폭력성을 자극할지 모른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데이트 폭력 피해와 상관에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을 많이 표출하는 여성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거나 아니면 순수 피해자일 수 있고, 남성성을 많이 표출하는 여성은 공격적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역할이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가 있는지 검증을 하려고 하였다.

사람들은 기준을 가지고 연인관계를 형성한다(Thibaut & Kelley, 1959). 다시 말해, 각 개인마다 연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그것에 대한 기대와 만족이 다르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

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Crandall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들이 관계에 개입하는 방식이 일반인과 다른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그들이 학대적인 관계, 즉 폭력을 가해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위협 때문일 때도 있지만, 그 관계에 집착하거나 깊게 개입되어 있어 상대의 구속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을 그 관계에 구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연인관계에서 상대가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구속한다고 생각하면 이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입도 덜 할 것이다(이경성, 한덕웅, 2005).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들이 관계에 만족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폭력을 행하는 남자와의 관계에 몰입하거나 개입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려고 하였다.

서양에서나 한국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Levy, 1990), 음주가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검증된 적이 있다(서경현, 2001; 서경현, 2003). 대인관계를 위해 사교적으로 음주(socially drinking)하는 수준이 아닌 폭주(binge drinking)나 과음은 데이트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서경현, 2003). 따라서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들이 위험 수준으로 술을 마시는지도 검증하려고 하였다.

데이트 폭력에 언어폭력까지 포함시키면 그 비율이 90%에 이른다(김정란, 1999; Neufeld, Mcnamara, & Ertl, 1999). 언어폭력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연구자들은 데이트 폭력에 신체적 폭력만을 포함

시키고자 하였다. 서양에서는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던진 것이나 상대방을 떠밀거나 찌른 것도 신체적 공격 혹은 폭력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런 행동이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방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처럼 모든 신체적 공격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하였다.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도 언어폭력은 배제한 신체 폭력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에 행해졌던 폭력의 사실 여부가 아니고 그런 폭력을 얼마나 목격하였는지를 변인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을 탐색하고 그들이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개입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구자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대생을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로 나눈 후 그들의 아버지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 위험음주 수준, 및 성역할 태도가 일반 여성과 다른지를 검증하고 그들이 연인관계에서 의사소통 수준은 물론 관계에 만족하고 개입하는 정도가 일반 여성과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추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세 대학의 여대생 52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733명

의 여대생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117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이성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거나 불완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90명은 데이트 폭력 가해만을 보고하여 제외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18세에서 37세였으며, 연령 평균은 20.10($SD=2.70$)세였다.

피험자들이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에 소비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다. 서양의 경우에는 면접을 병행하여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식 중에 면접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얻은 정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도 미국에서는 면접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해 보았고 한국에서도 시도해 보았으나 한국인들은 과거 이성을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실을 타인과 대면하여 밝히는 것을 특히 꺼리는 것을 깨닫고 익명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교차분석(χ^2 검증)과 t검증, 변량분석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SPSS 13.0 for Windows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 도구

갈등책략 척도

서경현(2001)에 의해 번안된 Straus의 갈등책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1979)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데이트 폭력 피해, 그리고 부

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이성친구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이성친구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아버지가 갈등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이 측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책략을 포함한 각 10문항씩만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없다’, 2-‘한 번’, 3-‘두 번에서 세 번’, 4-‘네 번에서 다섯 번’, 5-‘여섯 번 이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1번에서 20번까지가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갈등상황에서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사람을 향해) 어떤 것을 던졌다”, “떠밀거나 찼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다”, “심하게 구타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10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84, 데이트 폭력 피해가 .83,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목격이 .90였다.

데이트 폭력 정당화 척도

데이트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의 폭력 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1995)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여자들이 여덟 가지 상황 하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폭

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대 그러면 안 된다’, 2-‘심하지 않으면 괜찮다’, 3-‘그럴 수도 있다’, 4-‘맞을 짓을 했으니 당연하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여덟 가지 상황들은 상대방이 헤어지고 위협할 때, 술에 취해 정신 나간 짓을 할 때, 논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때릴 때, 상대방이 자신을 속인 것이 드러났을 때, 자신을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불렀을 때,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노닥거릴 때,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 때,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할 때로 묘사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8에서 32까지이다. 폭력정당화 척도의 내적일관도 Cronbach’s alpha값은 .82를 나타냈다.

성역할 성향 목록

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진경(1990)이 표준화한 한국판 성역할 검사 60문항 중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40개 문항을 이경성(2004)이 요인분석 하여 정리한 26문항(남성성 17문항, 여성성 9문항)의 목록을 사용하였다. 여성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는 “친절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따뜻하다, 인정이 많다, 다정다감하다, 유순하다, 싹싹하다”가 포함되었으며, 남성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는 “믿음직스럽다, 남성적이다, 강하다, 자신감이 있다, 박력이 있다, 독립적이다, 싹싹하다, 야심적이다, 의욕적이다, 자신신념을 주장한다, 의지력이 강하다, 대범하다, 집념이 강하다, 의리가 있다, 지도력이 있다, 결단력이 있다, 모험적이다”가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 1--'전혀 그렇지 않다', 2--'상당히 그렇지 않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중간', 5--'약간 그렇다', 6--'상당히 그렇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이경성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도(Cronbach's alpha)가 여성성과 남성성이 각각 .88과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과 .93이었다.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척도

연인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커플 간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및 관계개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경성(2004)이 결혼 전 이성관계에 적합한 문항으로 변환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개발 요인분석에서 상호이해 10문항, 관계만족 9문항, 및 관계개입 7문항으로 총 26문항이 추출되었다. 상호이해를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등이 있고, 관계만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함께 하는 동안은 행복하다”, “마지못해 사귀다” 등이 있고, 관계개입을 나타내는 문항으로는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다른 사람과 사귀는 생각이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7

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전혀 그렇지 않다', 2--'상당히 그렇지 않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중간', 5--'약간 그렇다', 6--'상당히 그렇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일관도(Cronbach's alpha)는 상호이해 .83, 관계만족 .87, 관계개입 .76 이었다.

결 과

대상자들의 이성관계의 특성

데이트 폭력 피해자란 데이트 도중 상대로부터 한번이라도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란 갈등책략척도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 보고는 없고 피해만 보고한 경우이고, 공격적 피해자란 가해와 피해를 모두 보고한 경우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44.5%와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여성의 47.5%가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 여성

표 1.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 순수 피해자, 및 공격적 피해자들의 이성관계 특성

변 인	폭력 미경험 ^a	순수 피해자 ^b	공격적 피해자 ^c	F	Scheffe
	(n = 305)	(n = 61)	(n = 180)		
사귀어 온 애인 수	M(SD) 5.07(5.15)	M(SD) 7.77(15.00)	M(SD) 6.79(6.52)	5.12**	a/b*, a/c*
평균 사귀 기간(개월)	10.41(15.24)	13.15(19.15)	10.61(10.85)	.80	
현재 사귀는 사람	있음(%) 44.9	있음(%) 47.5	있음(%) 56.3	χ^2 5.45+	

+p<.10, *p<.05, **p<.01.

의 56.3%가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보다 사귀어 온 이성친구의 수가 더 많았다, $F(2,523)=5.12$, $p<.01$. 이는 다양한 이성과 데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데이트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성친구와 평균 사귀어 온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수준

데이트 폭력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수준이 순수 피해자의 피해 수준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순수 피해자의 그것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9)=-3.61$, $p<.001$.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해

표 2.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수준의 차이

종속변인	피해자 분류	순수 피해자	공격적 피해자	<i>t</i>
		(n = 61)	(n = 160)	
		<i>M(SD)</i>	<i>M(SD)</i>	
데이트 폭력 피해 수준		1.77(.92)	3.64(4.01)	-3.61***

*** $p<.001$.

표 3.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유형의 차이

폭력 유형(문항)	피해자 분류	순수 피해자 (<i>n</i> = 61)		공격적 피해자 (<i>n</i> = 160)		χ^2	<i>F</i>
		%	<i>M(SD)</i>	%	<i>M(SD)</i>		
나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14.8	.15(.35)	30.0	.46(.87)	5.36*	.52**
떠밀거나 잡거나 찢렸다		50.8	.69(.77)	80.0	1.54(1.27)	18.63***	23.80***
손바닥으로 때렸다		24.6	.25(.43)	34.4	.61(1.01)	1.95	7.24**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13.1	.13(.34)	19.4	.47(1.08)	1.19	5.78*
몽둥이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때렸다		0.00	.00(.00)	5.0	.08(.40)	3.17	2.46
심하게 구타했다		0.00	.00(.00)	5.6	.11(.51)	3.58+	2.92+
칼 혹은 다른 무기가 될 만한 것으로 위협했다		0.00	.00(.00)	3.1	.04(.26)	1.95	1.73
칼 혹은 다른 무기가 될 만한 것으로 가해했다		0.00	.00(.00)	3.1	.04(.22)	1.95	1.75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37.7	.48(.67)	12.5	.23(.65)	17.9***	6.38*
반대하는데도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		8.2	.08(.28)	3.8	.07(.41)	1.84	.06

+ $p<.10$, * $p<.05$, ** $p<.01$, *** $p<.001$.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 따라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수준이 순수 피해자의 피해 수준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문항별로 분석해 보았다(표 3 참고). 문항의 평정점수가 모수가 아니고 그 점수를 변환한 것도 아니기에 변량분석의 결과는 이를 감안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문항에 순수 피해자의 응답한 비율이 0인 경우 교차분석에서 도출된 χ^2 값의 신빙성 문제도 감안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심하게 구타당하는 경우도 많으나 약한 정도의 신체적 가해를 당하는 비율도 높았다. 순수 피해자의 경우 심하게 구타당하거나 칼 등으로 위협당하거나 가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과는 달리 공격적 피해자의 경우에는 몽둥이로 맞은 경험을 8명(5.0%)이 보고하였으며, 심하게 구타당한 경험을 9명(5.6%), 그리고 심지어 칼 등으로 가해 당한 경험을 5명(3.1%)이나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격적 피해자들보다 순수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데이트 도중 상대가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을 12.5%의 공격적 피해자가 보고한

것에 반해 37.7%의 순수 피해자가 그런 경험을 보고했다, $\chi^2(1, N=221)=17.9,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데이트 도중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폭력으로 성행위를 하려고 한 경험을 보고 한 공격적 피해자는 3.8%인데 반해 순수 피해자는 그 두 배가 넘는 8.2%나 되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특성

데이트 폭력 여성 피해자, 특히 공격적 피해자가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그들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념, 및 위험음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표 4 참고). 분석 결과, 데이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수준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보다 높았다, $F(2,523)=10.15, p<.001$. 사후분석은 특히 공격적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들보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많이 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들이 데이트 폭

표 4.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 순수 피해자, 및 공격적 피해자의 아버지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 데이트 폭력 정당화, 및 위험음주 수준의 차이

종속변인	폭력 경험	폭력 미경험 ^a	순수 피해자 ^b	공격적 피해자 ^c	F	Scheffe
		(n = 305)	(n = 61)	(n = 160)		
		M(SD)	M(SD)	M(SD)		
가정폭력 목격		1.14(4.35)	2.57(6.26)	3.23(5.23)	10.15***	a/c***
데이트 폭력 정당화		11.15(3.88)	12.74(5.08)	13.14(4.57)	12.65***	a/b*, a/c***
위험음주		7.97(3.11)	8.02(3.82)	8.71(3.41)	2.78+	a/c+

+ $p<.10$, * $p<.05$, *** $p<.001$.

력 미경험 여성들보다 데이트 폭력에 관해 관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F(2,523)=12.65$,
 $p<.001$. 순수 피해여성들도 피해 미경험 여성
들보다 데이트 폭력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경
향이 있었지만($p<.05$),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
들은 데이트 폭력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p<.001$).

위험음주 수준에서도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과 미경험 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으나, 그 차이는 미미했다. 데이트 폭력 피
해자들의 음주 수준이 폭력 미경험자들의 그
것보다 경계적 유의수준에서 높았다, $F(2,523)$
 $=2.78$, $p<.10$.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들과 미경험 여성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트 피해 여성과 미경험 여성들 간

에 남성성과 여성성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지지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공격적 피
해자들의 남성성과 순수 피해자들의 여성성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
니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이 연인관계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데이트 폭력 순
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가 연인관계에서
상호이해, 관계에 대한 만족, 그리고 관계에
개입되어 있는 수준이 미경험자의 그것과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6 참고).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이나
순수 피해여성보다 상호교류가 많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F(2,523)$

표 5.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 순수 피해자, 및 공격적 피해자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

종속변인	폭력 경험	폭력 미경험 ^a (<i>n</i> = 305)	순수 피해자 ^b (<i>n</i> = 61)	공격적 피해자 ^c (<i>n</i> = 180)	<i>F</i>
		<i>M(SD)</i>	<i>M(SD)</i>	<i>M(SD)</i>	
여성성		34.15(7.94)	35.66(11.56)	34.29(7.83)	.82
남성성		58.29(16.25)	61.12(23.72)	59.99(15.78)	.98

표 6.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 순수 피해자, 및 공격적 피해자의 연인관계에서의 상호이해, 관계만족, 관계개입의 차이

종속변인	폭력 경험	폭력 미경험 ^a (<i>n</i> = 305)	순수 피해자 ^b (<i>n</i> = 61)	공격적 피해자 ^c (<i>n</i> = 180)	<i>F</i>	<i>Scheffe</i>
		<i>M(SD)</i>	<i>M(SD)</i>	<i>M(SD)</i>		
상호이해		35.87(10.41)	37.61(7.05)	38.48(10.10)	3.78*	a/c*
관계만족		35.11(10.28)	37.95(8.11)	36.11(10.25)	2.20	
관계개입		20.40(7.80)	22.56(7.51)	22.76(6.36)	6.29**	a/c**

* $p<.05$, ** $p<.01$.

=3.78, $p < .05$. 게다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다, $F(2,523)=6.29$, $p < .01$. 사후분석 결과,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그 수준이 더 높았다. 한편, 연인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에서는 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이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 그들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 위험음주 수준, 및 성역할 태도를 탐색하였고, 그들이 연인관계에서 상호이해하고 그 관계에 만족하고 개입하는 정도가 일반 여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심하게 구타당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약한 정도의 신체적 가해를 당하는 비율도 높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한 폭력을 당한 공격적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행했을 수 있다. 그리고 공격적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분노표출을 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밀치거나 찌르는 정도의 물리적 공격이 상대의 약한 수준의 폭력을 야기했을 수 있다(Bookwala et al., 1992). 다시 말해,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피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또래로부터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들 중에 심

각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자기 방어로 물리적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역으로 심각한 데이트 폭력의 피해당한 사람 중에는 순종적으로 폭행만 당한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폭력 피해를 당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힘으로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 폭력이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인 충격을 더 줄여줄 수 있는지 추후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면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재화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또래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가 순수 피해자보다 친구들에게서 배척당하는 것처럼(Schwartz, 2000), 공격적 피해자는 순수한 피해자보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성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Witte et al., 2006). 공격적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예: Felix & McMahon, 2006)와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평상시 분노 수준이나 분노표출 수준이 높은 것(서경현, 이경순, 2002)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런 특성이 데이트 폭력을 유발했을 수 있으나 폭력의 피해 때문에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분을 품게 되었을 수도 있다.

데이트 폭력 공격적 피해자들보다 순수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폭력적인 남성들이 폭력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성이 성적인 행동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성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 힘을 통해서도 단호하게 그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수준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보다 높았는데, 특히 공격적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많이 보고했다. 이런 결과는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여성이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과격하며 자기중심적인 남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Lichte & McCloskey, 2004), 갈등 상황에서 남성의 행동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하여 서로 폭력적인 책략을 쓰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폭력 가정에서 성장한 여성이 애정 문제에 취약하여 남성에 대한 건전한 사고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서적 문제를 가진 남성을 선택하여 폭력에 더 노출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결과는 일련의 선행연구들(서경현, 2004; 서경현 외, 2001; O'Keefe, 1997)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의 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실험연구는 아니지만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경험보다 선행되었다는 가정 하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 여성이 성장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였을 경우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Molidor와 Tolman (1998)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을 목격한 딸은 데이트 도중 갈등 상황이 되면 자기방어 차원에서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딸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각한 수준의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인데 그런 여성들은 데이트 폭력 가

해자와 결별하더라도 심리적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여성들은 평생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피해의 가능성을 아버지가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딸을 둔 아버지들이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자녀를 둔 남성은 비폭력적으로 아내와 갈등을 해결할 수 능력을 배양하고, 적어도 자녀가 주위에 있을 때는 논쟁을 벌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 여성들보다 데이트 폭력에 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들이 그랬다. 이런 결과는 일련의 선행연구들(서경현, 2002; 서경현, +2004; 서경현 외, 2001; Gray & Foshee, 1997; O'Keefe, 1998; Stets & Pirog-Good, 1989)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 그것에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들보다 피해자들이 데이트 도중 상대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진 여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공격적 피해자들 중에는 상대에게 폭력을 먼저 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피해를 입은 여성도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더 데이트 폭력을 정당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몇몇 연구들(서경현, 2004; 서경현, 이영자, 2001)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당성이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 행동이 자녀의 사고를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데이트 도중 폭력의 기미가 보이거나 약한 수준이라도 폭력을 당하면 그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단호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폭력이 실제화 되거나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그런 접근을 정당화 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폭력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Witte 등(2006)의 연구에서 같은 수준의 데이트 폭력이라도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은 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공격적 피해여성이 폭력의 빌미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으리라고 짐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신의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는 여성이 많다. 그런 이들의 행동이 이성친구의 폭력성을 먼저 자극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음주수준은 미경험 여성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 차이는 경계적 유의수준에 있었다. 음주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트 폭력의 경우도 그렇다(서경현, 2001, 2003). 그런데 음주는 데이트 폭력 가해와는 크게 상관이 있을지 모르나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가 음주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싶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경계적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과 미경험 여성 사이에 성역할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충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남성이 주도적이고 우세하며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트 폭력을 더 행한다는 연구 결과(Lichte & McCloskey, 2004)도 있었고, 순종하는 여성성을 보이지 않고 남성성을 보이는 여성에게 남성이 만족하지 못하여(이경성, 2004)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상대가 폭력을 행하지 않을까 가정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 여성이 데이트 도중 여성성을 더 많이 보인다고 데이트 폭력을 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성을 더 나타낸다고 데이트 폭력을 더 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이나 순수 피해여성보다 상호교류가 많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하위변인인 상호이해는 서로를 이해하여 약점은 보완해 주고 단점은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혹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라는 문항 등으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드러내는 것, 예를 들어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의사소통 방식도 이런 문항에 일치하는 행동이다. 이성관계에서 사람들은 이상(Ideal)을 가지고 있고, 그 관계에서 이상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Higgins, 1989). 그런데 그 이상과 맞지 않는 부분에 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나 이상적인 부분을 대화로 확인하려고 한다면 갈등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다면 폭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자신의 속에 있는 상대에 대한 기대나 미움의 감정은 절제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건강한 연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는데,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그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학대적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그 관계에 집착하거나 깊게 개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상대의 구속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을 그 관계에 구속하는 것이다. 사람이 관계에 중독될 수도 있다(Halpern, 1994). Nicarity (1999)는 학대하는 사람에게 중독되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상대방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거나, 상대방과의 만족스런 경험을 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나, 상대방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정리할 의지나 기술이 없거나, 연인관계를 힘든 세상의 피신처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관계에 중독이 잘 되는 여성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수용하려는 경향성이 있었다(Pearson, 1991). 중독성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지지된 연구들이 있었는데(Henton et al., 1983; Norwood, 1985; Pearson, 1991), Charkow와 Nelson(2000)은 의존 성향이 데이트 폭력 피해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Norwood(1985)와 Pearson(1991)은 관계에 중독되는 여성은 폭력과 학대가 난무하는 역기능적인 집안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회관계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이런 여성들은 소유욕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남성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남성이 이런 여성에게 쉽게 학대 행동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그 관계에 더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투자 모델(investment model)로도 설명할 수 있다. 투자 모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관계에 대한 개입을 예언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로는 대가와 보상, 그리고 그것의 균형을 보는 시각이고, 둘째로는 잠재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관계와 비교, 그리고 끝으로 그 관계에 얼마큼 투자했는가에 따라 관계를 종료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한다고 한다(Rusbult, 1980). 이런 투자 모델은 특히 연인관계의 지속과 종료를 잘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sbult, 1983). 여기서 투자란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보낸 시간, 마음고생을 한 것, 주위 사람들을 안전 보장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투자는 관계를 끝내면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집착하기도 한다(Dutton & Painter, 1981).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대안이 없으며 그 관계에 대한 투자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더 지속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과 심리적 자원도 투자인 것이고, 폭력 피해도 투자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재학하고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여성 모집단

을 대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의 심리측정 도구들로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을 완전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셋째, 실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로 인과관계를 완벽히 결론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해석의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는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재활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뿐 아니라 피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23-44.
- 박중효, Essex, M. J. (2002). 공격적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집, 167-172.
- 서경현 (2001). 이성을 사귀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가? 삼육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5, 91-104.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서경현 (2003).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61-78.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의 관계에서의 성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147-162.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 서경현, 이경순 (2002). 여성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이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여성건강학회지, 3, 33-54.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 안귀여루 (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679-695.
- 이경성 (2004).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성격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 131-150.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679-705.
- 정진경 (2004).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 1990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집, 57-67.
- Arias, I., & Johnson, P. (1989).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98-307.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ookwala, J., Frieze, I. 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297-311.
- Charkow, W. B., & Nelson, E. S. (2000). Relationship Dependency, Dating Violence, and Scrip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3*, 17-28.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Craig, W. M., Pepler, D., Connolly, J., & Henderson, K. (2001). Developmental context of peer harassment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puberty and the peer group.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 242 - 261). New York: Guilford Press.
- Crandall, M., Nathens, A. B., Kernic, M. A., Holt, V. L., & Rivara, F. P. (2004). Predicting future injury among women in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Trauma-Injury Infection and Critical Care*, 56, 906-912.
- Dutton, D., & Painter, S. (1981). Traumatic bonding: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ttachments in battered women and other relationships of intermittent abuse. *Victimology*, 6, 139-155.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0).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9. Uniform crime report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Felix, E. D., & McMahon, S. D. (2006). Gender and Multiple Forms of Peer Victimization: How Do They Influence Adolescent Psychosocial Adjustment? *Violence and Victims*, 21, 707-724.
- Follette, V.,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Foshee V. A., Linder, G. F., & MacDougall J. E., & Bangdiwala, S.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reventive Medicine*, 32(2), 128-141.
- Gray, H. M., Foshee, V. (1997). Adolescent Dating Violence: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r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126-141.
- Halpern, H. M. (1994). *Finally Getting It Right*. New York: NY: Bantam Books.
- Heise, L., & Garcia-Moreno, C. (2002). Violence by intimate partners. In E. Krug et al.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pp. 87-121).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A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In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2, pp. 93-136). NY: Academic Press.
- Howard, D. E., & Wang, M. Q. (2003). Risk profiles of adolescent girls who wer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dolescence*, 38, 1-14.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 27-40.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Lichte,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344-357.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 119-134.
- Neufeld, J., Mcnamara, J. R., & Ertl, M. (1999). Incidence and prevalence of dating partner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dating practi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125-137.
- Nicarthy, G. (1991). Addictive love and abuse: A course for teenage women in love. In B. Levy (Ed.), *Dating violence: Young women in danger* (pp. 240-257). Seattle, WA: The Seal Press.
- Norwood, R. (1985). *Women who love too much: When you keep wishing and hoping be'll change*. New York: Pocket Books.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Pearson, J. (1991). Relationship dependent women: Their views on symptoms and recovery. *Virginia Counselors Journal*, 19, 3-13.
- Ramisetty-Mikler, S., Goebert, D., Nishimura, S., & Caetano, R. (2006).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ssociated Drinking and Sexual Risk Behaviors of Asian, Native Hawaiian, and Caucasian High School Students in Hawaii.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76, 423-429.
- Riggs, D. S.,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usbult, C.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Rusbult, C.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72-186.
- Schwartz, D. (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81-192.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 - 1772.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 Psychology*, 5, 530-548.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Y: Wiley.
- Tjaden, P., & Thoennes, N. (2000). Extent, nature, and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Justice.
- Witte, T. H., Schroeder, D. A., & Lohr J. M. (2006). Blame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 647-668.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2. 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4. 9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nd their Commitments in Dating Relationships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Gwi-Yeo-Roo Ahn

Ka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victims, especially aggressiv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nd examine how they constructed the dating relationship and their commitments in dating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were 526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d the experience of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whose ages ranged from 18 to 37 ($M=20.10$, $SD=2.70$).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Straus' Conflict Tactics Scale, Foo and Margolin's 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Korean Version of Gender-Role Scale, and Lee and Han's Relationship Measures. Results revealed that aggressive victims of dating violence were more likely to receive mild violence as well as severe violence from their dating partners than victims only, while women who were victim only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s more than aggressive victims from their dating partners. Aggressive victims of dating violence had experienced fathers' domestic violence more than women who had not experienced dating violence. Victims of dating violence showed less negative attitude toward dating violence than women who had not experienced dating violence. Victims of dating violence showed stronger commitments in their dating relationships than women who had not experienced dating viol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professionals who help victims of dating violence.

Key words : dating violence, aggressive victims, domestic violence, gender-role, commitment in dating relationship